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공장에서 소방 당국이 불어난 금호타이어 2공장을 해체하고 있다. /뉴시스

## 금호타이어, 사고 수습에 노동자 고용위기까지 '첩첩산중'

공장 화재로 주요 공정이 불에 타 가동을 멈춘 금호타이어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산더미같은 숙제를 떠안았다. 피해액 산정조차 어려운 상황에 완성차 제조업체를 향한 납품 차질 현실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가 뒤따르면서 공장 정상화가 요원하다. 금호타이어는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변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 김용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 성용태 사협력담당상무, 김옥조 커뮤니케이션팀 상무가 참여했다. 금호타이어는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 현황을 알리고 향후 공장의 전망 등을 밝혔다. 사측은 현재 소방 당국의 잔불 정리를 위한 공장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공장 내부 진입이 어려워 손실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불이 난 2공장 뿐만 아니라 1공장까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력 공급을 중단한 상태기도 하다. 특히 타이어 전체 제조과정 중 핵심 공정이 2공장에 몰려있었던 만큼 1공장을 단독으로 가동하는 것도 어렵다.

“철거 중 공장 내부 확인 불가... 피해액 산정도 어려워”  
 “완성차 제조업체 납품 차질... 단독 규격 대체 생산 방침”  
 고용 앞둔 교육생 투입 차질에 “채용 최우선 통보할 것”  
 광산구 운영 대피소 비용 부담에는 “당국과 협의해봐야”

과거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는 1·2 공장을 나눠 가동했지만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는 당시에 일대 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에는 차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호타이어가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는 타이어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공장에서 대체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타이어 업체들과 함께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타 업체의 협조를 구하고 업체가 이들을 통해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떠올랐다. 사측은 공장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인력 재배치와 휴업 수당 등 노동자들의 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는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공장 인근 아파트 4곳 주민 249명이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대피했다가 19일 오전 집으로 돌아왔다. /전광훈 기자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서 우승한 뒤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토트넘은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손흥민은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뉴시스

## 손흥민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

토트넘, 맨유 1-0 제압... 41년 만에 유로파 정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무관 탈출을 이끈 ‘캡틴’ 손흥민이 자신을 ‘데전드’라 부르겠다고 웃었다. 토트넘은 22일(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잉글랜드)와의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전반 42분에 터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로 1-0 승리했다. <관련기사 12면> 이로써 토트넘은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무관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1971~1972 시즌 유로파리그 전신인 UEFA컵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토트넘은 1983~1984 시즌 이후 41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3전 4기’ 끝에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뉴시스

## 민주 전남도당, 대선 7대 공약... ‘공공의료·에코산단’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10여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이 22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전환의 발판”이라며 7대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 여수 석유화학 대전환을 통한 에코산단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이 우선 포함됐다. 또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관문 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도 공약화했다. 특히 도민 건강과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화순에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고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 등이 제시됐다. 전남도당은 석유화학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친환경 전환이 과제라고 제시했다. 전남도당은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과 관련해선 바다와 농지를 이용해 주민 참여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 첨단산업의 경우 우주 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와 합평 미래모빌리티 특화산단, 그린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 해남 솔라시도 글로벌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이 청사진으로 나왔다. 초광역 교통망의 경우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동권의 관문인 국제공항으로 승격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의 해남·완도·진도 연장,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달빛고속철도 조기착공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뉴시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 23일 봉하마을 엄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 무대에서 엄수된다. 16주기 추도식 슬로건은 대통령 묘비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이다. 이 슬로건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시민의 언어로 다시금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신민 조국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광역지자체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참석한다. /뉴시스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균인

# 법성포안오제

溫故知新

2025.5.29. (목) ~ 6.1. (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안오제보존회 /법성포안오제제전위원회 후원